

# 유관기관 유치...나주시 혁신도시 성장동력 재점화

공공기관 부속시설 유치 공약 1분기 47%서 2분기 66%로 경증  
한전KPS 인재 개발원 MOU·사학연금 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  
켄텍 연계 에너지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율 37.5% 진행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빛가람혁신도시 관련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 관련 부속·신규시설 등을 추가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4일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빛가람혁신도시 발전 등 민선8기 공약 중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올 1분기 기준 50% 미만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추가 이전 추진 사업'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계 에너지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빛가람혁신도시 관련 사안이 집

중적으로 다뤄졌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10년간 나주시의 인구 증가, 지방세입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추가 이전 추진 사업과 켄텍 연계 에너지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운병태나 주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낮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최근 지역민과의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해당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유관기관 추가 이전 추진 사업의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은 올 1분기 기준 47.2%에 불과했으

나, 올 2분기에는 66.1%로 경증 뛰었다. 한 분기만에 18.9%포인트(p)나 급증한 것이다.

최근 공약 이행률이 대폭 상승한 것은 올 상반기 중 확인지표 관련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한전KPS와 인재개발원 시설 확장 건립 관련 지원 MOU를 체결했으며, 5월에는 지난해부터 사립학교연금공단(사학연금) 측에 건의해왔던 연수원 건립을 위한 '신규 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도 발주했다. 또 2032년 준공 목표인 켄텍 연계 에너지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공약 이행률도 민선8기 들어 37.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소재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등을 건의하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결의대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력 촉구,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시설 발굴 등의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켄텍의 총장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지난 3년여간 한전의 재무위기로 인한 출연금 지원 불확실, 지난 정부의 지원 부재 등 많은 악재에도 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가 걸린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소 정비공사 연장 계약

2028년까지...수주금액 200억원

한전KPS는 "필리핀 루손(Luzon)섬에 있는 '일리한(Ilijan) 1200MW 복합화력발전소 정비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의 경상정비 공사로, 한전KPS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계획 예방정비 공사, 수명연장 관련 공사 등을 맡게 되면 총 수주금액이 2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4년간 일리한 복합발전소 정비 공사를 담당해왔으며, 누적매출은 1000억여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리한 복합발전소가 기존 운영사에서 새로운 3개 합작사 체제로 전환된 '사우스프리미어파워'로 변화하면서 정비 방식의 체제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이번 계약 수주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한전KPS는 장기간 무결점의 정비 실적 및 노후 설비 대응 기술력을 내세워 이번 계약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계약 수주를 통해 더욱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만큼, 향후 다양한 정비공사의 추가 수주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기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운영사 변경이라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고객 신뢰를 지켜낸 것은 현장 직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덕분"이라며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정비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해외사업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KEPCO 에너지 신기술

### 사업화 대전 최종 경연

### 우수사례 등 8개 기업 선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1일 서울시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제 1회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최종 경연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했으며, 한전 기술혁신본부장과 한국표준협회,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전은 한전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 중인 기업 중 우수성과를 보인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우수사례'와 한전이 제시한 유망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비즈니스 모델(BM) 콘테스트'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대전에는 45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차와 2차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분야에서 3개 기업, BM 콘테스트 분야 5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2주간의 역량강화 캠프 후 최종경연에 참여했다.

이날 최종경연에서는 한전 내외의 전문가와 대국민 평가단의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특히 이날 심사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연세대,



한양대 등 대학생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청년층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씨엔유글로벌'이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송암시스템', '텍스이노베이션'이 받았다. BM 콘테스트 분야 대상은 '스탠다드에너지', 최우수상 '에이티비랩', '아울시스템', 우수상은 '와트'와 '피레타'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산업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한전 사장상이 수여되며, 기업 부상으로는 '2026 CES 참가'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수상기업에는 전력연구원 전문가와의 1대1 매칭을 통해 기술이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신기술 전시회인 '빅스포' 전시 참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 aT, 농식품부와 '2025 자카르타 K-Food 페어'

### 업무협약 27건 체결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0-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 자카르타 K-Food 페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정부의 'K-Food 수출 확대 정책'에 발맞춰, 10-11일 B2B(기업 간) 수출상담회〈사진〉를 시작으로 12-13일 B2C(기업 소비자 간) 체험행사로 구성됐다.

B2B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 40개

사와 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 바이어 90개 사가 참여해, 총 531건의 1:1 상담을 진행했다. B2B 수출상담회에서는 딸기, 냉동만두, 스낵, 음료 등을 중심으로 11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27건이 체결되는 성과를 올렸다.

B2C 체험행사는 현지 바이어 16개 사와 함께 K-할랄 푸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은 '한강 편의점'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즉석라면과 컵밥 시식 행사를 진행해, 10만명이 현장을 찾았고 3만 달러 규모의 현장 매출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투표

한전KDN은 "오는 25일까지 자사가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대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전 임직원의 의견을 모아 접수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내부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대국민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의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난이도·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 총 4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오는 30일 최종 우수사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NT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